

군산에 친환경 농업미생물배양센터 세운다

농기센터, 내년 초 착공... 고품질 먹거리로 농가 소득 증대 기대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가 친환경 농업기반 확대를 위해 500㎡ 규모의 친환경 농업미생물배양센터를 건립기로 했다.

센터는 신축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전북도 군북 9억원과 시비 9억원 등 18억원을 확보해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가 상반기내 완공할 계획이다.

현재 농기센터는 EM 복합미생물, 광합성균 등 5종의 유용미생물 110여톤을 축산농가와 친환경 재배농가, 원예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농업용 유용미생물은 토양 속 유해균의 밀도를 낮추고 토양환경을 개선해 작물의

생육촉진과 병해 발생 억제에 도움을 주고, 축사의 악취제거에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유용미생물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의 미생물 배양시설 확충은 친환경농업을 준비하는 지역 농업인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문영엽 농기센터 소장은 "친환경 농업미생물 공급 확대를 통해 고품질의 친환경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농업환경 조성과 건강한 먹거리를 통한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진북연합신문

친환경 농업미생물 대량공급 체계 구축

군산, 예산 18억 확보 내년 배양센터 신축 추진

군산시는 지역 내 친환경농업 확대 및 안전농산물 이미지 부각을 위해 친환경 농업미생물 대량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500㎡ 규모의 친환경 농업미생물 배양센터를 내년에 건립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친환경 농업미생물 배양센터 신축을 위해 현재 사전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도 군북 9억원과 시비 9억원 등 18억을 확보해 내년 초 실시설계와 조기착공을 통해 내년 상반기내 완공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농업용 유용미생물은 토양속 유해균의 밀도를 낮추고, 토양환경을 개선해 작물의 생육촉진과 병해 발생 억제에 도움을 주고, 축사의 악취제거에 효과가 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유용미생물을 적극 활용하

고 있고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의 미생물 배양시설 확충은 친환경농업을 준비하는 지역 농업인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시는 그동안 미생물 공급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미생물 배양시설에 살균 및 멸균기능을 보강하고 미생물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EM 혼합균 중심으로 생산하던 배양시스템을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등의 단일균으로 세분화시켜 작물의 사용목적에 맞게 공급해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방침이다.

또한, 농업용 미생물은 꾸준히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미생물 사용 방법과 시기 등을 SNS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판

내 미생물 활용농가 DB를 구축하고 있고, 사용과 운반이 용이하도록 미생물 공급 포장용기도 개선한다.

특히 비료사용량 절감과 친환경 농업 실현을 위한 농업인들의 미생물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미생물 공급시스템에 대한 사전교육과 주기적인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김미정 기술보급과장은 올바른 방법으로 미생물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며 "친환경 농업미생물 공급 확대를 통해 고품질의 친환경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농업환경 조성과 건강한 먹거리를 통한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군산=허정찬 기자
cldn27@daum.net

군산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내년 건립

“농업환경 개선 · 농가소득 증대”

18억원 투입 내년 상반기 완공

군산시는 지역 내 친환경농업 확대 및 안전농산물 이미지 부각을 위해 친환경 농업미생물 대량공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500㎡ 규모의 친환경 농업미생물 배양센터를 내년에 건립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시는 친환경농업미생물 배양센터 신축을 위해 현재 사전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도 군특 9억원과 시비 9억원 등 18억을 확보해 내년 초 실시설계와 조기착공을 통해 내년 상반기내 완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현재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EM 복합미생물, 광합성균 등 5종의 유용미생물 110여종을 축산농가와 친환경 재배농가, 원예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농업용 유용미생물은 토양 속 유해균의 밀도를 낮추며, 토양환경을 개선해 작물의 생육속진과 병해 발생억제에 도움을 주고, 축사의 악취저거에 효과가 있다.

또한, 농기센터는 그동안 미생물 공급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미생물 배양시설에 살균 및 멸균기능을 보강하고 미생물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EM 혼합균 중심으로 생산하던 배양시스템을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등의 단일균으로 세분화시켜 작물의 사용목적에 맞게 공급해 효과를 극대화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농업용 미생물은 꾸준히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미생물 사용 방법과 시기 등을 SNS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관내 미생물 활용농가 DB를 구축하고 있으며, 사용과 운반이 용이하도록 미생물 공급 포장용기도 개선할 계획이다.

김미정 기술보급과장은 “친환경농업미생물 공급 확대를 통해 고품질의 친환경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농업환경 조성과 건강한 먹거리를 통한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임태영기자·kukw9@

전북타임스

친환경 농업 기반 확대 나선다

군산시, 친환경 농업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 건강한 먹거리 제공·농가소득 증대 등 기대

군산시가 농업미생물 활용 친환경 농업기반을 확대하며 농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역 내 친환경농업 확대 및 안전농산물 이미지 부각을 위해 친환경 농업미생물 대량공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500㎡ 규모의 친환경 농업미생물 배양센터를 내년에 건립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친환경농업미생물 배양센터 신축을 위해 현재 사전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도 군특 9억 원과 시비 9억 원 등 18억을 확보해 내년 초 실시설계와 조기착공을 통해 내년 상반기내 완공할 계획이다.

현재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EM 복합미생물, 광합성균 등 5종의 유용미생물 110여종을 축산농가와 친환경 재배농가, 원예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농업용 유용미생물은 토양 속 유해균의 밀도를 낮추고, 토양환경을 개선해 작물의

생육속진과 병해 발생 억제에 도움을 주고, 축사의 악취저거에 효과가 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유용미생물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의 미생물 배양시설 확충은 친환경농업을 준비하는 지역 농업인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시는 그동안 미생물 공급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미생물 배양시설에 살균 및 멸균기능을 보강하고 미생물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EM 혼합균 중심으로 생산하던 배양시스템을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등의 단일균으로 세분화시켜 작물의 사용목적에 맞게 공급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방침이다.

화학농약 실효가 어려운 친환경 재배농업인들과 고추재배 농가의 애로사항인 병해충 예방을 위해 고추 탄저균 예방균, 나방류 살충용 BT제 등 병해충 관리용 미생물을 공급해서 현장의 고

충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업용 미생물은 꾸준히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미생물 사용 방법과 시기 등을 SNS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관내 미생물 활용농가 DB를 구축하고 있고, 사용과 운반이 용이하도록 미생물 공급 포장용기도 개선한다.

특히 비료사용량 절감과 친환경 농업실현을 위한 농업인들의 미생물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미생물 공급시스템에 대한 사전교육과 주기적인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김미정 기술보급과장은 올바른 방법으로 미생물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며 “친환경농업미생물 공급 확대를 통해 고품질의 친환경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농업환경 조성과 건강한 먹거리를 통한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친환경농업 기반 확대 박차

새만금일보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007면 지역

군산시 농업미생물 활용 친환경 농업 기반 확대

군산시가 농업미생물 활용 친환경 농업기반을 확대하며 농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역내 친환경농업 확대 및 안전농산물 이미지 부각을 위해 친환경 농업미생물 대량공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500㎡ 규모의 친환경 농업미생물 배양센터를 내년 초 건립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미생물 배양센터 신축을 위해 현재 사전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도 균독 9억원과 시비 9억원 등 18억원을 확보해 내년 초 실시설계와 조기착공을 통해 내년 상반기 내 완공할 계획이다.

현재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EM 복합미생물, 광합성균 등 5종의 유용미생물 110여종을 축산농가와 친환경 재배농가, 원예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김미정 기술보급과장은 올바른 방법으로 미생물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며 “친환경농업미생물 공급 확대를 통해 고품질의 친환경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농업환경 조성 과 건강한 먹거리를 통한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송정일 기자

미생물 배양센터 건립 추진 18억 투입 내년 상반기 준공 공급체계 세분화 효율 증진

군산시의 선진 농정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내년 18억원을 투입해 500㎡ 규모의 친환경 농업미생물 배양센터를 건립한다. 현재 사전 행정절차를 마쳤고 내년 상반기 완공 목표로 조기 착공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면 농업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농업 기반 확대로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이 예상된다.

실제로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EM 복합미생물, 광합성균 등 5종의 유용미생물 110여종을 축산농가와 친환경 재배농가, 원예농가에 공급중인데 반응이 좋다.

농업용 유용미생물은 토양 속 유해균의 밀도를 낮추고 토양환경을 개선해 작물의 생육 촉진과 병해 발생 억제에 도움을 주고 축사의 악취 제거에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많은 농가가 유용 미생물을 적극 활용하고 그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미생물 공급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생물 배양시설에 살균 및 멸균기능을 보강하고 미생물 품질 관리에 나섰다.

시는 EM 혼합균 중심으로 생산하던 배양시스템을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등 단일균으로 세분화시켜 작

물의 사용 목적에 맞게 공급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친환경 재배 농민들과 고추 재배 농가의 예로사함인 병해충 예방을 위해 고추 탄저균 예방균, 나방류 살충용 BT제 등 병해충 관리용 미생물을 공급해 현장 고충을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군산시 기술보급과 김미정 과장은 “친환경농업미생물 공급 확대를 통해 고품질의 친환경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농업환경 조성 과 건강한 먹거리를 통한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또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한 원예 활동으로 심리적 치유와 정서 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관내 어린이집 원생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어린이 도시 원예 체험활동’이다.

도시농업관리사들이 해당 어린이 집을 방문해 식물 및 재배 방법 등을 교육하고 어린이들이 직접 눈으로 보며 키울 수 있는 식물을 화분에 심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큰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군산시 농촌지원과 김선주 과장은 “코로나로 지친 어린이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생명의 소중한, 자연에 대한 감사마음이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정준모 기자